

보도자료

2010년 5월 27일(목)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제협력관 국제기구담당관 전영만 과장(☎750-1730)
국제기구담당관 김맹호 사무관(☎750-1731) kmho@kcc.go.kr**방통위 형태근 상임위원, 쩌 득 라이 베트남
정보통신부 차관과 양자 면담****- 전파관리, 정보보호 분야에서 협력 확대키로 -**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5월 27일(목) 오전, 쩌 득 라이 베트남 정보통신부 차관을 접견하고 양국간 ICT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베트남 정보통신부 차관은 방송통신장관회의 초청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명하고, 방송통신장관회의와 부대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발전된 ICT 산업 및 서비스에 대하여 칭찬하고 한국과의 협력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형태근 상임위원은 '디지털 기반의 경제와 문화의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노출, 스팸 등 역기능 예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09.10월 체결한 MOU의 후속 조치로 한-베트남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의 상시적 협력 채널이 구축되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대하여 쩌 득 라이 차관은 인터넷 문화 확산에 따른 역기능 예방을 위해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에 대하여 협의해 나가자고 화답하였다.

※ 한-베트남 MOU('09.10월) 주요 협력 분야 : ▲ IPTV, 디지털이동방송 등 방송 통신 융합서비스, ▲ WiBro, 3G 등 이동통신 서비스, ▲ 정보 보호 및 정보 보호 기술 ▲ 방송프로그램 교류 및 공동 프로그램 제작, ▲ 방송통신 기술 개발과 표준화 분야 등

또한, 켄 득 라이 차관은 베트남의 디지털전환 계획(2010~2020)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세부실행방안 수립시 우리나라의 정책경험을 전수받기를 희망하는 한편, ICT 인력양성 지원을 요청하였다. 특히, 베트남 정보통신대학설립에 필요한 정책자문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형태근 상임위원은 적극적인 협력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전하였다.

한편, 형태근 상임위원은 T-DMB, WiBro, IPTV, 전파관리시스템, 번호이동서비스 등 우리나라 ICT기술 및 서비스의 베트남 진출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전개하였다.

이에 켄 득 라이 차관은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용이하도록 투자환경 개선 등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2014년 ITU 전권위원회 유치 지원요청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하였다.

이번 양자회담을 통하여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베트남의 ICT 발전을 위해 한국의 정책경험 등의 전수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켄 득 라이 차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6차 방송통신장관회의(Worl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ummit 2010, 5.25, 신라호텔)와 월드IT쇼에 참석하였으며, 남은 방한 일정 동안 KAIST, 삼성전자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끝.